희망을 찾아서

꿈을 향해 꾸준히 준비하고 정진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공무원 한원민 씨 ••

지난 해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해 공무원이 된 시각장애인 한원민(29세) 씨.

특별채용을 통해 공무원이 된 첫 시각장애인이자, 유일한 시각장애인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은 그는 군대 복무 중에 레버 시신경증이란 희귀병에 걸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중도실명인입니다. 실명을 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 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펐을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그는 실명을 해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명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외양상으로는 그저 사서가 좋아서 직장을 바꾼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기에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서도 행복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어서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을 위한 특채 소식을 접하고 지원,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에 특채 채용에도 응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지원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꿈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자신처럼 실명한 사람들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는 그는 장애인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공무원의 조건만 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게 가져 장애인의 한계를 넘으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막 공무원 사회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로서 의욕에 넘치는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4월에 새로 개설하는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영화를 보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는 오늘도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전시회나 공연장, 극장에 갈 때

시각장애인은 영화나 스포츠 관람, 전시회, 공연 보기 등과는 아주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관람하는 안내자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시각장애인도 비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지 볼거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회장이나 공연장은 공연물에 따라 매우 어두운 환경이거나 많은 소리가 겹쳐져 청각 의존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전시회에 갔을 경우는 전시회 공간을 함께 천천히 둘러보며, 작품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촉각을 활용한 전시회라면 전시물 하나하나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공연장에 갔을 때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배경이나 주변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공연을 즐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5권 3호 통권 104호

2009년 3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시계방향 : 1.시각장애인 공무원 한원민 씨
2.스웨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노르딕 스키 동메달을 따고 제6회 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MVP를 차지한 임학수 선수
3.직업적응훈련
4.'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황화성 의원

손으로 보는세상
2009. March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에도 점자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에는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는 다른 신용카드나 기타 소지하는 카드들과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하여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하여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의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21만 6,881명으로 그중에 문자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1~3급의 중증시각장애인은 5만 1,587명입니다. 이 많은 시각장애인이 무용지물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검토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개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욕구와 사용의 편리성을 반영한 복지카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시각장애인들은 구 전화카드처럼 카드 모서리에 반원 또는 일정한 모양의 홈을 파고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의 복지카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카드명을 점자로 양각 인쇄하는 방식도 일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복지카드 개선방안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져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되고, 이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고 있으나 잘 개선되지 않는 차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하는 인터넷 세상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Korea Web Accessibility Assessment Center)

장애인과 노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에 비해 이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웹개발자의 무관심으로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2004년 34.8%에서 2007년 49.9%로 15.1%나 증가했고, 노령자 이용률 또한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하여 웹 사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방지책을 마련하고 2008년 4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과 노인 등 인터넷 이용에 불편한 사용자가 다른 모든 사용자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을 높이면 화려하고 세련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없고, 제작 비용이 훨씬 증가하며, 특수 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웹 개발 단계에서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웹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환경이나 소리를 켤 수 없는 장소에서 TV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막이 없다면 어떨까요? 당장 이용해야만 하는데 마우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키보드로 조작이 가능하면 편리하겠지요. 우린 가끔이지만 장애인은 항상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정작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웹 접근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지식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웹 개발자와 관리자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당사자 단체로서 웹 접근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여 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는 웹 접근성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웹 사이트에 대하여 사전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웹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02-6925-112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진설명

1. 웹 접근성이 좋은 홈페이지
2.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에 적절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웹 접근성이 좋지 않은 홈페이지

NEWS ALBUM

충청남도의회 황화성 의원(시각장애 1급)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선정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임학수 씨가 2009년 스웨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노르딕 스키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취업 전 사회적응 및 직업 인식 훈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합니다.

서초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반상회보 **'서초소식'의 점자판을 발행**하고, 음성변환 출력코드를 반상회보 상단 모서리에 인쇄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포커스

제6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제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정선과 춘천, 경북 의성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사상 최초로 16개 시·도 전체가 참여하였고, 예년에 비해 여성장애인 선수의 출전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회 우승은 경기도가 총점 7,583점(메달 14개)을 기록하며 차지했고, 강원도는 7,068점(메달 10개)으로 지난 해에 이어 2위를, 지난 해 우승팀인 서울은 6,737점(메달 12개)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 남자 시각장애 1Km 클래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강원도의 임학수(21. 하이원리조트)는 기자단 투표에서 62.5%의 득표를 얻어 대회 MVP에 선발됐습니다. 임학수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스웨덴 솔레프테아에서 열린 '2009 패럴림픽 윈터월드컵대회'에 출전, 크로스컨트리 시각장애인 스프린터 경기(1.2Km)와 클래식 경기(20km)에서 나란히 3위에 올라 '2010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 출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은 순위 향상을 이룬 선수단에게 수여하는 성취상은 지난해 14위에서 이번 대회 5위로 뛰어 오른 인천광역시 선수단에게 돌아갔으며 격려상은 전라북도선수단, 모범선수단상은 대전광역시, 지도자상은 경상북도선수단의 윤문이 감독(37. 빙상)이, 신인선수상은 대회 첫 번째 메달의 주인공인 빙상의 이지영(17. 경기)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설명

1. 아이스슬레지하키 경기
2. 크로스컨트리 경기
3. 우승한 경기팀